

전일동향

전일대비 0.70원 하락한 1,506.1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30원 하락한 1,499.5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세가 규모는 줄었지만 계속 이어지고 달러화 상승에 낙폭이 제한되며 전일대비 0.70원 하락한 1,506.1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9.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7.19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99.50	1507.60	1498.50	1506.10	1503.50
	엔화	948.17	949.04	942.25	947.19	-
	유로화	1751.27	1752.26	1742.12	1749.56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6	-3.47	-7.79	-15.28
	결제환율(수입)	-0.22	-2.17	-5.58	-11.7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이란 협상 관망세 속...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06.10) 대비 0.85원 하락한 1,503.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 기대에 제한적 하락 전망한다. 간밤 이란 최고지도부가 고농축 우라늄 반출 금지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에 협상 난항 우려가 확대되었으나,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확신하는 발언을 하고 양국 최종 합의문서 초안 완성이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낙관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국제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 강달러 부담 완화로 이어져 금일 달러/원 환율에도 하락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1,500원대에서 적극적인 매도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수출업체 네고물량 또한 환율 하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 협상 교착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원화 강세를 지지할 재료가 부재한 상황 속,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 매수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99.67 ~ 1512.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211.8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85원 ↓
	■ 美 다우지수 : 50285.66, +276.31p(+0.5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48.8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21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